

# 설 연휴 내 공간에서 문화를 즐기다

올해 설 연휴는 11~14일까지다.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코로나19 탓에 이번 연휴도 집에서 보내야 할 형편이다. 가족·친지·친구들과의 모임 대신 집에 머물며 온라인 문화생활을 통해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이번 연휴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공연과 전시·행사를 소개한다.

온라인으로 만나는 공연·전시·행사...문예회관 '국악상설공연', ACC '호모루피엔스' 국립국악원 '랜선 타고 설설설', 시립미술관 '시간의 기억', 박물관 '광박의 문제아들'

광주문화예술회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국악원 등이 설 명절을 맞아 국악, 현대무용, 뮤지컬 등 다양한 무대를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성현숙)은 오는 11~14일 연휴기간동안 가족과 함께 안방에서 국악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국악상설공연을 공식 유튜브 채널(GAC TV)을 통해 선보인다.

11일에는 향산주소연판소리보존회가 '남강하네', 판소리 '심청가' 중 '황성 올라가는 대목', 임이조류 '한량무', '신사철가'를 들려준다. 이어 열쑤(12일)가 '타고', '부포놀이', '모듬북과 사물놀이'를 선보이며, 도드리(13일)는 국악가요 '못난이 아리랑', 국악관현악 '아리랑광주' 등을 준비했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올라가 국악실내악 '방황', 국악가요 '상사디어', 국악관현악 '격동' 등을 선보이며 마무리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박태영-이하 ACC)과 아시아문화원(원장 이기표)은 '집콕 문화생활 설 특별전'을 준비했다. 10일부터 14일까지 문화포털과 ACC 유튜브 채널에서 만날 수 있는 이번 특별전에서는 지난해 선보인 공연 가운데 반응이 뜨거웠던 작품 중 일부를 공개한다.

먼저, 2020 ACC 월드뮤직페스티벌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예-인디밴드 로든·국악인가요·브루나·오열의 공연을 만날 수 있다. 이들의 무대는 ACC 이동식 무대인 무빙시어터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즐길 수 있으며, 알앤비(R&B), 퓨전국악, 보사노바, 인디팝 등 다양한 장르 음악을 들려준다.

ACC 장·제작 현대무용 '호모 루피엔스' 쇼케이스에는 무용단 언플러그드 바디즈가 출연한다. 산업 시대가 가



광주시립미술관 '배동신·양수아 100년의 유산' 전.



지역 문화기관들이 11~14일 설 연휴동안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공연과 전시를 선보인다. 사진은 국악상설공연 모습.

저울 인간과 사물, 기계·장치의 관계 속에서 인간 소외와 불평등이 야기돼 인류의 삶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한 작품이다.

지난해 열린 송년음악회에서 첫 번째 무대를 장식한 궁만고의 '대동 춤' 중 '벽과 벽 사이에서'와 '호두까지 인형극' 모음곡 연주, 뮤지컬 배우 이지훈·정선아의 뮤지컬 넘버 걸라 무대,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의 신곡도 감상할 수 있다.

국립국악원은 신축년 설 연휴를 맞아 미공개된 대표 공연 4개 작품을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11일부터 14일까지 매일 오후 3시 국립국악원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채널을 통해 선보이는 '랜선 타고 설설설'이다.

효령세자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동궁 세자의 하루'(11일)로 시작해, 설 당일인 12일에는 국립국악원 대표 공연 '꼭두'를 영화화한 '꼭두 이야기'가 관객을 찾아간다. '1828 연경당'(13일)은 순원황후의 40세 탄신 기념 잔치를 담은 공연으로 '춘앵전', '무산향', '춘대옥축', '박집', '가인전막단' 등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개되는 '종묘제례악'(14일)은 2015년 한복 수교 130주년을 맞아 프랑스 사이오극장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도 온라인 전시를 진행 중이다.

먼저, 리일현 사진작가 초대전 '시간의 기억'은 광주미

술인 100명의 기록사진과 리 작가의 예술사진 등 178점을 만날 수 있는 전시다. 전시는 '존재와 시간', '공간의 전위', '광주미술인 100인' 등 세 파트로 구성됐다.

'파리로 간 예술가들'전은 미술관 소장 작품, 그중에서도 하정웅컬렉션 중 중심으로 1950년대~1970년대 서구 미술(프랑스)과 직접 접촉하며 작품 활동을 전개한 근현대 미술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기획전이다. 김창열·이우환·박서보를 비롯한 23명 작가의 회화 작품 50여점을 만날 수 있다.

지속적으로 환경, 생명 등에 관심을 갖고 작업해온 4명의 작가를 초청해 선보이는 '생태조감도'전은 설치, 영상, 사진, 회화 등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지구라는 자연의 생태계와 함께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다룬다.

'배동신·양수아 100년의 유산'전은 호남미술의 주요 흐름을 정리해 지역 미술사를 연구, 재정립하는 2020 광주미술아카이브전이다. 전시에서는 두 화백의 대표작품들과 함께 사진, 영상, 팸플릿 등 100여종의 다양한 아카이브 자료를 만날 수 있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수미)은 11일부터 14일까지 '설레는 서프라이즈 럭키박스 증정 이벤트', '광박의 문제아들' 등 우리 문화 한마당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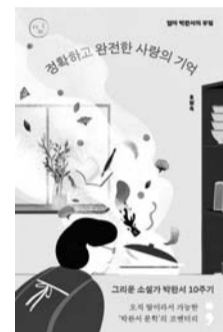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힘들고 지친 마음 위로하는 에세이 "그리워졌다... 시간을 주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답답한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들을 벗삼아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지친 마음에 위안을 줄 에세이 5권을 추천한다.



▲밥이 그리워졌다= '떡방'이 넘쳐나는 시대이지만 사람들은 늘 영혼의 허기에 허덕인다. 문학평론가이자 소설가인 김용희가 '이번 생에서 기억할 만한 음식 50가지'에 대해 소개하며 음식을 소재로 한 소설, 영화, 시, 음악 이야기도 함께 들려준다. 칼국수, 삼겹살, 양푼비빔밥, 떡볶이, 김치찌개, 라면, 짜장면, 설렁탕 등은 저마다의 추억을 일깨운다.



▲엄마 박완서의 부엌=고(故) 박완서 소설가의 따뜻한 호원속 작가가 '그리운 엄마의 10주기'에 펴낸 에세이. "어머니가 떠오르는 그리운 장면은 거의 다 부엌 언저리에서, 밥상 주변에서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말하는 저자는 자신이 엄마의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가족, 지인들과 또 다른 추억을 만들며 살아가는 모습을 담담하게 풀어낸다. 딸이 머뭇머뭇 따서 찜을 싸 먹을 땐 엄마의 맛갈스러우면서도 단정했던 문장을 떠올리는 장면은 잔잔한 울림을 준다.



▲나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에스24가 진행하는 '2020 올해의 책'에 선정된 오리여인 작가의 에세이다. 그림과 글로 SNS상에서 15만 팔로워와 소통하고 있는 저자는 이번 책에서 작고 소중한 마음과 내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저자는 인생에서 느림과 빠름의 기준이 되는 건 무엇일까라고 되물으며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보폭으로 걷는 삶을 보여준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내가 나를 기다려주는 일일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아름다움은 지키는 것이다=김탁환 소설가는 발품을 팔아 전국의 마을을 살살이 돌며 '소멸'에 대해 생각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순간 소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현실을 자각한다. 이러한 고민에 방향을 제시해 준 이가 곡성에서 발원한 미를 연구하고 가공하는 '미실란'을 이끌고 있는 미생물학 전문가 이동현 박사다. 농부과학자 이동현은 작가의 질문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준다. 즉 '아름다움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지키는 태도'이며 씨앗을 틔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넋따가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시대의 선각자이자 사상가이며 참치식인이었던 신영복의 유고집이다. 생전 선생이 발표한 글과 강연록 중 책으로 묶이지 않은 글들을 모은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선생(스승)이라 칭한다. 스승이라는 존칭이 점차 어색하고 사라지는 시대에 신영복은 그를 기억하는 많은 이들에게 스승의 사표로 남아 있다. 동굴과도 같은 감옥에서 길어 올린 깨달음의 언어는 감명과 위안을 주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첨단우리병원

###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